

“정부 제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재검토해야”

“사실 인정·사과 없이 한·일 기업 자발적 출연금으로 배상” 시민모임 “피해자들 협의·동의 구하고 포괄적 협의 나서야”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 입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판

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 절차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모두 537명이 신청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모임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의 방안은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의 기업의 출연금’을 ‘판결금’ 대신 지급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피해자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 전달은 양국간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의견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기업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편 시민모임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등 5개 단체는 21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후속 교섭 요청서’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낼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산을 압류당한 상태로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미쓰비시는 협의의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양국 검찰 합의 등 5명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이동원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월 미쓰비시 측에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압류채권액은 총 8억4000여만원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 플러스 보훈·태극기 나무 만들기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대에서 열린 ‘아시아문화 플러스 보훈을 잇다’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 나무를 만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보훈청과 ACC가 공동 개최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출연 빛고을장학재단 시민모임 “신학대 배제 차별”

광주시가 출연한 빛고을장학재단이 일부 신학대학교 학생만 지원에서 배제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은 대학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해 배정하고, 수혜 학생은 총장이 추천한다.

하지만 매년 수립하는 장학계획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는 광주 18개 대학(전남대학 포함) 가운데 광신대와 호남신학대를 제외한 16곳만 포함돼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광주시에 원인을 질의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개 대학이 모두 중립학교여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오늘부터 수소충전소 운영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천안 방향)에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연다.

20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량 인프라 구축을 위해 21일 백양사 수소충전소 개장식을 갖고 영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백양사 수소충전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개장 당일에는 오후 2시부터 충전이 가능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22:53
해질 19:50 **달집** 08:34

따가운 햇볕
내륙 중심으로 낮기온 올라 답답했다.

광주	맑음	19/30	보성	맑음	16/28
목포	맑음	19/26	순천	구름맑음	19/30
여수	구름맑음	21/27	영광	맑음	18/27
나주	맑음	17/30	진도	맑음	17/26
완도	맑음	19/28	전주	맑음	19/28
구례	맑음	18/31	군산	맑음	18/26
강진	맑음	18/29	남원	맑음	18/30
해남	맑음	17/28	흑산도	맑음	18/24
장성	맑음	17/29			

◇바다 날씨

시해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대서)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매우 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5	04:51
여수	21:55	16:39
	05:29	11:16
	17:12	23:55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19/28	18/27	18/28	19/29	20/28	21/28	21/29

내일 하루종일 돌풍·천둥 동반 5~40mm 비

오는 주말 일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내일이 계획이 있다면 유의해야 할 것을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 오전부터 23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 이겠다”고 20일 예보했다.

22일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5~40mm 내외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읍주운전 기준 강화...광주·전남 月 적발 60건 늘 듯

오는 25일부터 읍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읍주운전 적발건수가 월 평균 60건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개월(3~5월)간 광주·전남에서 읍주단속기준 미달(0.03~0.05% 미만)로 훈방 조치된 건수는 3월 39건, 4월 82건, 5월 83건으로 월 평균 68건이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읍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미만으로 하향되면 지금까지 훈방조치되던 읍주운전자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경찰은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읍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대대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전개 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동구 학운2구역 주거개선사업 오늘 첫 삽

내년 6월까지 도로 3개 노선 주차장 2곳·소공원 등 확충

광주시 동구 학운2구역(미량마을)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21일 첫 삽을 뜬다. 광주시 동구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손실보상 절차를 마치고, 21일부터 1구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학동 미량마을에 도로 8개 노선(1368m), 주차장 3곳(1108㎡), 소공원 2곳(203㎡)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내년 6월까지 도로 3개 노선(길이 592m·폭 6m), 주차장 2곳(635㎡), 소공원 2곳(203㎡) 등을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도로 5개 노선과 1개 주

차장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개설 할 계획이다. 1차 공사가 완료되면 조대부고에서 의재로 구간 우회도로가 개설돼 출퇴근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해 총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